

배포 2026. 09. 29.(화)

타슈켄트한국교육원, 명사 초청 특별 강연회 개최

- 우즈벡 교민 대상 '타국 생활 속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' 강연
- 현지 한국어학과 재학생 대상 '한국의 세계화와 사회·가족 문화' 강연

타슈켄트한국교육원(원장 이영웅)은 9월 22일(화)과 9월 24일(목), 양일간 우즈베키스탄 현지 교민과 한국어학과 재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특별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
※ 강연자: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선미

이번 강연회는 지난 3월 개최된 대사관 주재 교민 대상 타운홀 미팅 후속 조치로, 우즈베키스탄 내 교민 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, 현지 예비 한국어 교원 및 대학생들에게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

■ 교민 대상: 타국 생활 속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 찾기

첫 번째 강연은 9월 22일(화) 타슈켄트한국교육원 열람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교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'타국 생활 속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 찾기'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.

강연에서는 해외 정착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 차이와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,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대화법과 정서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참가한 교민들로부터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.

■ 현지 한국어학과 재학생 대상: 한국의 세계화와 사회·가족 문화의 특징

이어 9월 24일(목)에는 니자미 국립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4학년 재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'한국의 세계화와 사회·가족 문화의 특징'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.

본 강연에서는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 변화해온 한국 사회의 구조와 가족 문화의 특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. 특히 한국어 전공 학생들이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,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배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술적·실용적 통찰을 제공했다.

■ 한-우 인적 교류 및 교육 협력 강화 기대

타슈켄트한국교육원은 이번 특별 강연회를 계기로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인문학·교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
교육원 관계자는 “앞으로 국내 우수 학자 및 명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교민 사회의 정서적 이정표가 되고, 현지 한국어 전공 학생들이 양국의 미래를 잇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명사 초청 특별 강연회 현장 사진

기관	타슈켄트한국교육원	책임자	원 장	이영웅 (+998 71-291-8182)
		담당자	부원장	이은규 (+998 71-291-8182)
			기획실장	김옥동 (+998 71-291-8182)
			기획팀장	강경태 (+998 71-291-8182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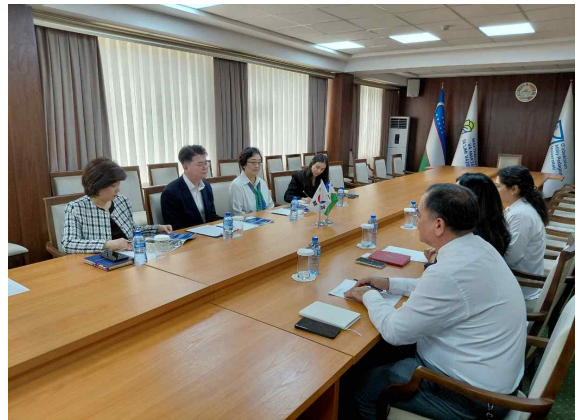
9월 22일 강연회 현장



9월 22일 타슈켄트한국교육원
원장, 부원장과의 간담회



9월 24일 강연회 현장



9월 24일 니자미 국립사범대 부총장과의
간담회